

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기후에너지부, 살균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 실시

미승인 물질·제품 단계적 퇴출
AI 기반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
전자기기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기 위해 '제조·유통·사용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섬유제품 등 소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해·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아울러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

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한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은 20% 이상 단축한다.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 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와 안전사용 캠페인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33.3억弗… 역대 최대

해양수산부 전년 대비 수출 9.7% ↑
조미김 중심 참치·굴 등 증가 추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어 ▲참치(5.4억 달러) ▲고등어(2억 달러) ▲오징어(1.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빨고기와 넙치, 게살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4%, 9.

0%, 7.5%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 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또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해 씨포츠 프로젝트(스포츠 경기시 오프라인 홍보)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앞줄 오른쪽 6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병원에서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삶의 질 높인다

송미령 장관, 여성농업인 간담회
“공동경영주 등록 등 정책 지속 보완”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전북 익산 소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장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또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정책 개선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종전에는 농외 취업 제한으로 인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여성농업인들도 참석해 정책 변화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직접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Project 상생’ 성과공유

119레오 사례 등 이목집중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Project 상생' 사업이 해외판로 개척과 지역문제 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Project 상생'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와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임팩트 IR 경진대회 '쇼미더임팩트 시즌5' 최종 우승기업인 케이알지그룹과,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119레오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공부문 일자리, 1년 만에 증가 전환

데이터처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0.1% (약 1000개) 늘어난 287만5000개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2년 연속 감소는 면했으나, 증가율이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 대비로 2019년 6.1%, 2020년 6.3%, 2021년 2.6%, 2022년 1.4%, 2023년 -0.2%, 2024년 0.1%를 기록 중이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로 전년 대비 0.2% (4000개) 늘었는데, 이 중 지방정부 일자리가 152만7000개로 0.5% (8000개)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일자리는 88만9000개로 0.5% (5000개) 줄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로 0.6% (3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비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6만9000개로 0.8% (1만2000개) 줄었고, 여성 일자리는 140만6000개로 1.0% (1만3000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9000개·1.9%), 50대(1만4000개·1.4%), 60세 이상(7000개·0.7%)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2만9000개·-2.9%)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0대(-9000개·-0.9%)에서도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하나로유통, '설 특판 전략회의' 개최

임영선 대표 등 100여명 참석

농협하나로유통이 '2026년 사업추진 및 설 특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이 전략회의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은 전사적인 사업추진 결의를 다졌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을 기점으로 얼어붙은 유통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회의에는 임영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국 사무소장 및 본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오는 2월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2월2일부터 16일까지 본격적인 설 특판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선물세트(▲농협다움 과일혼합 ▲한우 명품)와 농협 특별 선물세트(▲농협목우촌 ▲농협홍삼 ▲농협양곡) 등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하나로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